

특별기획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부안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16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신용카드 등 온라인 납부하기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정읍시가 12일부터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그리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지정업소와 함께 이·미용과 세탁소, 목욕업 등 신규업소 발굴을 위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시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는 외식업 29개소와 이·미용업 5개소, 세탁업 1개소 등 총 35개소이다.

시는 일제정비를 위해 지역경제담당과 1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했고, 점검표에 따라 현지 점검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

부안군(군수 김중규)은 토지분할하기가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더욱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설맞이 가로등 일제정비

정읍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지역 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귀향객과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유지보수업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가로(보안)등 시설의 램프 고장파손 정비, 전기선로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정비대상 중 소규모 설비는 즉시 보수하며,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중장기 순차적으로 신속 정비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2017 주요업무 보고회

새만금 중심도시 주도적 역할 수행

김제시는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 3층 회의실에서 이승복 시장권한대행 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담당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 부시장 및 읍·면·동장, 실무 담당급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실과소 핵심사업들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정 전반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김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정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지리가 되었다.

김제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2017년 시정방향인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를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해양중심도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 신산업기반 확충으로 탄탄한 지역경제 견인, 종자산업과 첨단농업으로 농생명허브 조성, 김제호인 담긴 역사



문화관광도시 육성, 공감형 맞춤형복지로 차별없는 행복도시 실현,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기반 확충, 시민의 역할을 키워주는 열린시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새해 시정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km)의 김제시 관할 경계 견인, 종자산업과 첨단농업으로 지평선축제의 전국최초 5년연속 대한

민국 대표축제 선정, 종자산업을 선도할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 신산업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백구특장차전 문단지 준공과 오랜 숙원인 김제육교 재가설 국비 확보 그리고 각종 외부 평가에서 역대 최다인 38개 부문에서 수상기록을 세우는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결과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제3농공단지 공사 '순항'

6차산업 연계 식품산업 유치 · 지역발전 견인차

부안군 제3농공단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6차 산업 연계되어 식품 산업 유치 · 지역발전 견인차 구실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부안군 행안면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가 201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부안군은 준공 전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분양 로드맵을 마련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은 행안면 여리 일원에 사업비 335억 원을 투자해 329,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군은 제3농공단지를 ▲하이

찬스(High Chance)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 식품 기업'을 유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국내 100대 식품 기업 방문 등 '세일즈 부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식품산업 이미지에 맞도록 아름답고 친 환경 적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00주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단지 분할 형태에서도 단일기업이 주도하는 '일괄분양'과 창업(創業)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한 '소규모분양'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안군이 2013년에 조성한 제2농공단지 1월 현재 분양률 93%로 연말까지 100% 분양 완료 목표에 두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농공단지 분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AI 살처분 종사자 사후관리 실시

김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지난해 12월 28일로 AI살처분비 종료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대책반(2개반 16명)을 구성하여 살처분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을 주기로 8회(3,122건) 개인별 확인, 문자 발송 및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 종사자 및 대응요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추가로 실시하고, AI 인체감염 위험군(살처분 참여인력)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한 재난 심리회복지원 심리상담 지원 안내(농동감시 중 공포, 두려움, 무력감 등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의심되는 증상)도 실시하여 AI 살처분 참여인력의 사후관리에 주력 하고 있다.

AI 살처분 종사자 투입인력을 보면 공무원 7개소(전북도청, 전북도 축산과, 김제시청,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역본부, 35사단 등)와 전북농협지역본부 및 11개 용역업체가 참가해 1,743천수를 살처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8일~24일까지... 기존주택 · 신혼부부 49가구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도 주변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8

호를 포함한 기존주택 37호, 예비신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호 등 총 49호이다.

김제지역 지원한도액은 5,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 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 부안 오순도순 보금자리 개소

고부면 죽리 경로당 리모델링
찜질방 등 갖춰 · 정 나눔 공간

정읍시와 부안군 점령지역에 인접 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문을 열었다.

정읍시가 '오순도순 보금자리 조성사업(이하 보금자리)'의 일환으로 2억4천만원을 들여 고부면 죽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지난 13일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부지 542㎡에 건평 177㎡인 보금자리는 찜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갖췄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고령 친화적 구조로 설계된 점이 돋보인다.

개소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시의회 의원들 비롯한 내외귀빈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정

읍 · 부안 인접지역 주민들의 공동 생활시설인 오순도순 보금자리 조성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생애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관련, 시는 부안군과의 인접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간 유대 강화, 그리고 고령의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던 중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성동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사업' 일환인 '오순도순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편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GIF SET

부안강산
Premium Old Wine

GIF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 | 750ml 1ea/12%

GIF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 | 375ml 5ea/13%

GIF SET 6: | 500ml 4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 SET 7: | 375ml 2ea/13%

TEL : 083-584-9980
www.gangsanwine.com